



이승기(왼쪽에서 두번째) 광주상의 회장이 지난 25일 일본 도야마 공항에서 열린 '서울-도야마 아시아나 취항 15주년 기념식'에 참석. 이시이 도야마현 지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함께 축하풍선을 터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광주-日 도야마 민간교류 재개

광주상의 상공의원단 방일 ... 한·일친선협회 회원 올 가을 訪韓 성사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가 지난 22~25일 방일(訪日)활동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단절됐던 광주·전남지역과 일본 도야마(富山)현 간 민간교류의 물꼬를 텅다. 이번 방일에서 광주상의는 도야마 한·일친선협회와 도야마 상의 회원들의 방한을 성사시킨데 이어, 광주비엔날레·여수엑스포 등 광주·전남지역의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양 지역 기업들은 경제·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21명의 상임의원들로 구성된 일본 시찰단은 지난 22일 방일 일정을 시작해 도야마시청, 도야마현청, 기타닛폰(北日本)신문, 도야마 한일친선협회, 도야마 상의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회장은 모리 마사시 도야마 시장과 이시이 유이치 도야마현

지사를 만나 광주와 우호도시 결연을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 회장은 "1983년 한일친선협회 회가 발족한 이래 왕성한 교류활동을 펼쳐오다가 3년 전 '서운한 사건'(독도사건을 지칭)으로 인해 왕래가 끊겼다"면서 "광주상의의 이번 방일이 두 도시간 문화·경제 교류를 다시 잇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두 도시가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했으면 한다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탁을 전하면서 "올해 열리는 광주비엔날레·광주 김치축제를 비롯해 2012년 여수엑스포 등에 일본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방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시이 지사와 모리 시장은 "광주와 도야마는 그 역사와 전통·산업·문화 측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면서 "민간차원 뿐 아니

라 상공업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방한초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만여명의 상공인들로 구성된 도야마 한일친선협회 오카다 회장도 "광주김치맛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가"라며 관심을 나타내며 "전 세계를 취향시키더라도 올 가을에 대규모 방한단을 이끌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지역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회장 일행은 세계 70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YKK 지퍼'의 본산인 YKK그룹, 전통 약제시장, 일본 북알프스로 불리는 '다테야마(立山) 알펜루트', 구로베(黒部)협곡 등을 둘러봤다.

한편 이 회장은 25일 '서울-도야마 아시아나 취항 15주년'을 맞아 도야마 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시이 지사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일본도야마(富山)=이종태기자 jilee@

무주택 서민 울리는 고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내달 첫 7%대 넘어서 이자부담 '눈덩이' ... 내집 마련 꿈 멀어져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처음으로 7%대를 넘어서는 등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5월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연 6.75%(10년 만기)~7.00%(30년 만기)에서 연 7.00~7.25%로 오른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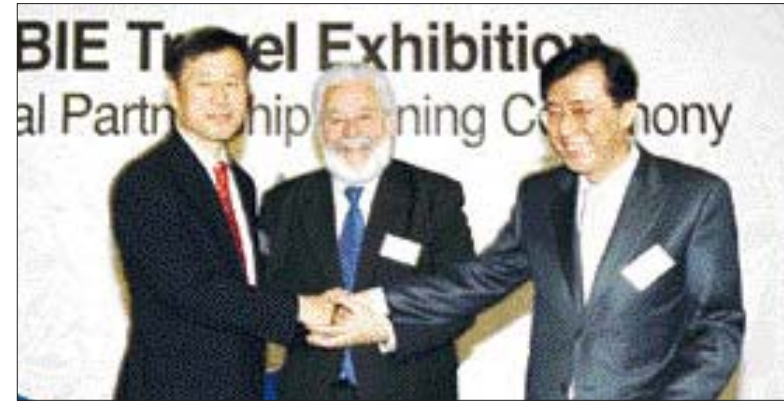
조건으로 빌릴 경우 매달 내야하는 원리금이 현행 77만2천300원에서 78만7천349원으로 1만5천49원 늘어날게 된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2%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 6.80~7.0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급자리론'의 금리도 0.2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반면 금리는 5월1일 대출분부터 적용하며 4월30일까지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인상 전 금리를 적용한다. 지난 2004년 3월 '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후 대출금리가 연 7.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년 만기 상품의 출시 당시 금리는 연 6.70%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가산 금리의 확대에 대출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올들어 판매한 보급자리론이 모두 역마진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기아차 BIE 순회박람회 후원사 선정

여수 등 10개국 14개 도시 2011년까지 전시회 행사

현대·기아차가 지난 25일 'BIE 순회박람회(BIE Travelling Exhibition)'의 공식후원사로 선정됐다. 순회박람회는 세계박람회를 이미 열었던 도시와 개최 예정지 등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엑스포가 가져다준 경제·사회·문화적 유산과 가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세계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행사다.



25일 스페인 마드리드 리츠 호텔에서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가운데), 기아차 남광호 유럽총괄법인장(왼쪽), 현대차 인건희 서유럽 법인장 등이 'BIE 순회박람회'의 공식후원 조인식을 갖고 있다.

2011년까지 마드리드(스페인), 브뤼셀(벨기에), 파리(프랑스), 뉴욕(미국), 나고야(일본), 상하이(중국), 런던(영국)과 여수(한국) 등 10개국 14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며, 3년 동안 연인원 약 300만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는 각 도시마다 약 6주 간 열리는 박람회를 통해 브랜

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과 함께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여수 알리기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후원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각 도시간 전시물 운반 및 모형물 제작 등을 위해 BIE에 약 60만 유로(한화 9억5천만원)를 지원하고, 박람회

장 및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에 공식 후원사 표기와 로고 사용권한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아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유럽차종 '씨드' 첫 국제환경인증 획득

기아차는 유럽전차종 씨드가 한국차 최초로 국제 인증기관 독일 튀브노르트로부터 친환경제품체계(DFE) 및 전과정 환경성 평가(LCA)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제품체계 평가는 신차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성, 차량 해체성 평가, 재활용 실행률, 생산공장의 환경경영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획득 여부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전과정 환경성 평가는 재료의 획득·제조·사용·폐기단계의 투입물과 배출물을 정량화해 지구온난화 등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해 평가를 매기도록 돼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씨드의 국제 환경인증 획득은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기아 브랜드와 친환경적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포스코 자회사 '포스워드'

광양 세탁물 클리닝센터 준공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워드(대표이사 박준석)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한 광양 세탁물 클리닝센터가 지난 24일 준공행사를 가졌다. (사진)

포스워드는 포스코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1월 1일 출범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양·포항·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포스워드는 전직원 130여명이 세탁 사무지원, IT·통신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교체 여부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태석 광주은행장 등 우리금융지주 CEO들의 재신임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공기업 기관장 가운데 운용로 기업은행장과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철환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양전식 수출입은행장은 교체에 예상

정태석 광주은행장 재신임 받을까

금융공기업 기관장 교체여부 윤곽 드러나

된다. 김 총재는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총재' 명칭에 대한 권위성을 지적하는 등 교체설이 거론돼 왔다. 양 행장은 전임 행장 대다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다는 점에서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린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경우 관료 출신인 박병원 우리금융 회장의 교체 예기가 나오는 반면 민간출신인 박해준 우리은행장은 유임이 점쳐진다. 정태석 광주은행장과 정경득 경

남은행장은 지방은행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재신임 여부를 예금보험공사가 일일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두 지방은행장들은 이미 연임을 했다는 점이 불리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한이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 자연스럽게 교체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MBC 문화탐방

황산·장가재

2008년 4월 22일 ~ 5월 27일

장사(장가재) 전향

2008년 4월 22일 ~ 5월 27일

문의: (062) 226-6070

광주 <---> 북경

아시아 항공

항공사	항공편	항공사	항공편
아시아	OC 491	아시아	KA 801 / KA 802
아시아	OC 500	아시아	TK 801 / TK 802

문의: (062) 226-6070